

강진군, 1차 영농현장 찾아 맞춤형 지원책 발굴

강진읍 등서 생활민원 청취 모내기·수국화훼 농장 찾아 마을공동급식소 76곳 운영 농업인 위한 시책 적극 마련

강진군이 관내 1차산업 현장을 찾아 군민과의 소통강화에 나섰다. 농번기철을 맞아 실제 영농현장을 찾아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책들을 발굴·편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원 강진군수가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이해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에 여념이 없는 영농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1차산업의 노동현장을 찾아 군민 소통을 펼쳤다.

강 군수는 지난 28일 강진읍과 북삼면의 들녘 및 농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생활민원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각 읍·면의 모내기, 수국 화훼농가, 조식료 및 맥류 수확 등 농번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1차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 등 군정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강 군수는 작천면 부흥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에 참여해, 바쁜 영농철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식사를 챙기도록 각별히 당부하며 소통 행정을 강화했다.

강진군은 농번기 농업인들의 식사를 위해 마을 공동급식소 76개소를 운영 중이다. 공동급식 및 반찬 배달을 실시하며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다.

부흥마을의 경우 꼬끼리마늘꽃을 주제로 한 '작천 꼬끼리마늘꽃 3Days' 행사를 오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개최해 농특산물 판매장터, 꼬끼리마늘꽃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름다운 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관광객을 불러 모아, 행사 개최가 지역의 농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농번기철을 맞아 관내 한 벼농가를 찾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산물 판매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창 바쁜 농번기에 무리한 농작업으로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농기계 사고에도 각별의 주

의를 기울여 달라"며 "군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나주시 '2024 동행축제' 목사고을시장서 열려

나주시가 최근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2024 동행축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시가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으로 나주중앙초학생들과 까리파스 성모 유치원 어린이 등 23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대회 및 장보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장보기 체험용으로 제공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물건을 구매하면서 경제관념을 배우고 버블쇼, 마술쇼, 키링·디퓨저 만들기 체험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통시장을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 저학년, 고학년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이 선발됐으며 각각 20만원, 10만원,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 받았다. 나주=조대봉 기자

어린이 우리강 그리기 대회 광주 남구 영산강문화관서

지난 25일, 광주 남구 승촌보길에 위치한 영산강문화관(케이위터운영관리)에서 제1회 환경부장관배 '어린이 우리강 그리기대회'가 열렸다.

30일 영산강문화관에 따르면 환경부 주최, 한국수자원공사 및 케이위터운영관리(주)가 주관한 이 행사는 영산강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300여명과 그 가족들은 '사람과 자연, 함께하는 우리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그리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영산강문화관을 찾았다.

영산강문화관에서는 그리기대회와 함께 공유포토존, 매직·버블쇼, 어린이 '끼' 경연대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주제 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표현성 등을 기준으로 2차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결과발표는 6월 중 예정으로 개별통보 및 온라인 KWOMC홈페이지(https://zrr.kr/8beB) 또는 어린이우리강그리기대회 접수페이지(https://zrr.kr/QPmZ)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진용 기자



지난 25일 광주 남구 승촌보길에 위치한 영산강문화관에서 환경부장관배 '어린이 우리강 그리기대회'가 열렸다. 수상작은 6월 중 개별통보 예정이다. 영산강문화관 제공

GS칼텍스, 여수 다문화아동 가정 성장 지원

여수·굿네이버스, 예술치료 지원 12월까지 아동·부모 60여명 대상

GS칼텍스가 여수시, 굿네이버스와 함께 지역 다문화 아동의 맞춤형 예술치료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30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전날 여수시청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이운호 굿네이버스 광주전남 지역본부 부장, 김기웅 GS칼텍스 대외협력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다문화아동 마음톡톡' 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한 'GS칼텍스 여수 다문화아동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미술과 음악 등 예술 매체를 활용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5월부터 12월까지 다문화아동과 부모 6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대상 개별 예술치료 및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각 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GS칼텍스와 굿네이버스는 사전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성향을 파

악한 후 음악, 미술, 모래놀이 등 다양한 종류의 예술 매체 중 개인 성향에 맞춰 치료를 진행한다. 성장 지지 체계 확립을 위해 보호자 상담까지 준비했다.

김기웅 GS칼텍스 대외협력부장은 "22년 예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결과 여수 지역 다문화 아동과 부모의 자기표현 및 문제 해결 능력, 자아 존중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돼 작년보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GS칼텍스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체리 주산지 도약 본격 출하 친환경인증 확대

장흥군은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체리를 본격 수확·출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체리는 정상적인 혈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칼륨의 훌륭한 공급원이자 강력한 항암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체리의 국내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가능성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체리는 노지재배인 경우 6월 중순부터 수확이 가능하다. 장흥군에서는 온화한 기후와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생산환경의 영향으로 이른 시기에 고품질 체리를 맛볼 수 있다.

김찬흠 봄농장 대표는 장흥군 체리재배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김 대표는 "시설 재배를 통해 5월 하순부터 로컬푸드와 직거래 판매를 통해 출하를 시작했다. 어린이와 가족단위 체리 따기체험을 6월 중순까지 병행할 계획으로 밀려드는 체험예약과 선주문으로 인해 조기마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화순군, 꽃강길 음악분수 이벤트 내일부터... '복합 문화공간' 예정

화순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연출곡 추가 및 최첨단 영상시설 설치로 군민과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공연에서 생일·결혼·사연 등을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이벤트를 계기로 버스킹, 음악분수 공연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이벤트는 기념이 필요한 순간과 일상 속 특별한 순간을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에서 함께 나누길 바란다는 취지로서 홈페이지에 접속된 여러 사연 등을 선정해 영상, 사진 및 축하 문구 등을 워터스크린으로 연출해 관람객과 함께 기쁨과 설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더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고흥군,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민·관 합동 단속반 2개반 편성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생활안전 강화 및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허가(신고) 건축물의 무단 증축·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오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 2개반 28명으로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상반기(2023년1월1일~6월30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287건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조진용 기자

국가무형유산 영광법성포단오제 열린다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영광군은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2024 영광법성포단오제가 '바람따라, 풍류따라(海風樂風)'를 주제로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및 법성포 뉴타운 일원에서 개막한다고 30일 밝혔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를 전후로 개최되며 500년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이다.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강릉단오제, 자인단오제 등과 함께 대한민국 3대 단오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법성포단오제는 민간주도적이고 나눔과 어울림의 한마당이라는 특색이 있다. 대부분의 축제가 관 주도로 치러지는데 반하여 법성포단오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협력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처럼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법성포단오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주요

행사인 난장뜨기, 용왕제, 선유놀이 등이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영광법성포단오제는 2024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프로그램 구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용왕제·선유놀이·당산제·산신제 등 전통 민속·제전행사를 기본으로 기념식·단오장사 씨름대회·전남도 청소년 페스티벌·민속놀이 경연대회·강강수월래·남사당패 줄타기·창포 머리감기·장어잡기와 각종 체험 및 초청가수 공연 등 예년보다 풍성해진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영광=김도윤 기자